

<동정자료>

손병석 차관, "성공적 올림픽 개최 위한 선수촌 품질 관리 중요" 강릉 유천 택지지구 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·미디어촌 준비상황 점검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2시,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'평창 동계올림픽'에 참가하는 각국의 선수들과 기자들의 숙소로 제공될 강릉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.

- 손 차관은 강릉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설 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공 보고를 받고 "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래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다."라며,
 - "선수촌과 미디어촌은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 각국의 선수와 기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시설인 만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선수촌의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."라고 강조했다.

 - 이어 "선수촌에서 생활하게 될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휴식과 안정을 취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"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부했다.

- 강릉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릉시 유천 택지지구 내에 조성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으로,
 - 작년 10월 임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인수하여,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와 기자단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.

2018. 1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